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02 2018 | Vol. 552

원숭이도 좋아하는 온천(猿も好きな温泉)
Photo : LEE WOO HYUN_나가노현, 2016 한일포토콘테스트 EPSON상

스즈키 다이치 스포츠청 장관 인터뷰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성화 봉송을 위해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스즈키 다이치(鈴木大地) 일본 스포츠청 장관은 1월 12일 성화 봉송 주자로 참가했으며, 1월 11일과 12일에는 각각 한국체육대학교와 서울일본인학교에서 강연을 가졌다. 본지에서는 스즈키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 올림픽과 양국 간 스포츠 교류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스즈키 장관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된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100m 배영·400m 혼계영에서 금메달, 1988년 서울 올림픽 100m 배영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2015년 광주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일본 선수단 단장으로서 참가하는 등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신 듯 합니다. 내일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게 되는데, 소감을 들려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저는 한국과 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런 나라에서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게 되어 매우 명예롭게 생각하며, 한마디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스포츠청 장관으로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해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은 무엇인가요.
일본으로서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직전 올림픽이므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서 일본 선수단의 활약이 앞으로 일본 스포츠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작년 ‘일한중 스포츠장관회의’ 개최 당시에 ‘평창선언’

鈴木長官は、ソウルで開催された1986年アジア大会100m背泳ぎ・400mメドレーリレーで金メダル, 1988年ソウルオリンピック100m背泳ぎで金メダルを獲得され, 2015年に光州で開かれた夏季ユニバーシアードに日本選手団長として参加されるなど、韓国とは特別なご縁をお持ちのように感じられます。明日、2018年平昌オリンピックの聖火ランナーとして走られますが、ご感想をお聞かせ願います。

ご質問のとおり、私は韓国とは今までに様々なご縁がありました。今回、特にそうした国で聖火ランナーとして走らせていただけることは、大変名誉であり、本当に「ありがたい」の一言です。

スポーツ庁長官として韓国で開催される平昌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関心事項は何ですか。

日本としては平昌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が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大会前の最後のオリンピックです。平昌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での日本選手団の活躍が今後の日本のスポーツ界に元気を与えてくれると思っているので、その活躍を期待しています。

一昨年に日中韓スポーツ大臣会合が開催された際に「平昌宣言」が採択されましたが、平昌、東京、北京と日中韓でオリ

이 채택되었는데, 평창, 도쿄, 베이징의 일한중 3국에서 올림픽·패럴림픽이 연속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메달 후보 선수는 물론, 모든 선수가 평소의 실력을 십분 발휘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평창을 찾은 것은 2년 전인데, 평창의 거리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각국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평창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되어, 전 세계인들과 우호, 친선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에 이어, 2020년에는 도쿄에서, 또 2022년에는 베이징에서 올림픽·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올림픽·패럴림픽이 연속 개최되는 셈인데, 이를 계기로 일한 스포츠 교류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평창 올림픽 개최로 한국은 동계와 하계 올림픽·패럴림픽을 모두 경험한 나라가 됩니다. 재작년의 '평창선언'에



림픽·패럴림픽が連続開催されますので、そのような点でも平昌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大会の成功を深く祈っています。韓国や日本にもメダル候補選手がいますが、それぞれの選手が日頃の成果を発揮して良いパフォーマンスを見せてくれることを祈念しています。

また、私が最後に平昌を訪れたのは2年前なので、平昌の街がどのように変わっているのかも非常に気になります。平昌大会が無事に開催され、各国の選手がベストを尽くし、世界中の人々の友好・親善が図ら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2018年平昌に続き、2020年には東京で、また、2022年には北京で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が開催されます。東アジアで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が連続開催となるわけですが、このような機会における日韓のスポーツ交流に期待することがありましたら、お聞かせ願います。

平昌大会の開催により、韓国は夏期と冬期の両方の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経験した国になります。一昨年の「平昌宣



서는 상호 정보제공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서로가 대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선언을 하고 동맹을 맺은 데 머물지 않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을 위해, 스포츠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선수들이 후회 없는 경기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더위에 대한 대책 등 각국 선수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에 관심 있는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일본과 가까우니, 많은 한국 분이 일본에 오셔서 올림픽 · 패럴림픽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일본을 더욱 좋아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에 힘쓰겠습니다.

言」では、互いが情報提供やノウハウの共有により協力関係を築こうという宣言がありました。互いが大会の成功に向けて協力し合い、助け合う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ただ宣言をしてアライアンスを結んだだけでなく、実行に移していけるよう我々も力を尽く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2020年の東京オリンピック · パラリンピックに向けて、スポーツ庁ではどのようなことに取り組ん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

選手が悔いのない競技成績を収められるよう環境の整備を行っています。運営面でも暑さ対策など、各国の選手がベストを尽くせるよう取り組んでいます。

東京オリンピック · パラリンピックに関心を持っている韓国のみなさんにメッセージをお願いします。

韓国は日本から近いので、多くの韓国の方々に日本にお越しいただき、オリンピック · パラリンピックの感動を分かち合い、より日本を好きになってもらえるよう準備に努めて参ります。



스즈키 다이치 일본 스포츠청 장관 특별강연 개최

지난 1월 11일(목)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2020 도쿄 올림픽을 맞아 일본 스포츠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스즈키 다이치(鈴木大地) 일본 스포츠청 장관의 특별강연이 한국체육대학교 합동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스즈키 장관은 강연회에서, 서울에서 개최된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에서 수영선수로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래, 의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수를 거쳐, 일본수영연맹, 국제수영연맹에서 활동한 발자취를 소개했다. 또 스포츠청 장관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 스포츠 행정 전반에 관한 소개와 함께, 2020년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 경기 대회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로서의 스포츠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 사회적 교류 등 다양한 목적에서 스포츠 인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스포츠로 ‘인생이 변한다, 사회를 바꾼다, 세계와 이어진다, 미래를 창조한다’>는 제2기 스포츠 기본 계획의 요점을 소개했다.

또, 2020년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 경기 대회 등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가 되도록 선수, 대학교수, 그리고 스포츠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스포츠청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밝혔다.



와카사정의 효노센 스키장

평창군과 와카사정이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한다!

와카사정 개요

와카사정(若桜町)은 서일본 돗토리현(鳥取県)의 동남단에 위치하며 자연이 풍요로운 '녹음과 청류의 고장'이다. 효노센(氷ノ山) 국정공원은 표고 1,510m로 '일본 200개 명산'과 '일본의 비경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너도밤나무 자연림과 고산식물 등이 많이 자라는 한편,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일본동면쥐 등 희귀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 여름에는 등산과 캠프, 겨울에는 파우더스노를 즐길 수 있는, 서일본에서도 몇 안 되는 스키장이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조물도 많은데, 국가중요문화재인 '후도인 이와야도(不動院岩屋堂)'는 천연 바위 굴 안에 있는 무대 구조의 건축물로 일본의 3대 나게이레도(投入堂, 절벽의 동굴에 세워진 건축물) 불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핑크색 증기기관차(5월 이벤트 당시)



와카사정을 찾은 심재국 평창군수와 평창군 방문단

본당의 부동명왕(不動明王)도 일본의 3대 부동명왕 중 하나라고 한다.

와카사역에는 1930년 개장 당시의 모습을 간직한 목조 역사와 기관차의 방향 전환을 위한 수동식 전차대(轉車台) 등의 설비가 남아 있으며, 와카사 철도에 있는 23개 시설은 국가등록유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다. 최근에는 분홍색으로 칠한 증기기관차를 선보이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철도 팬을 비롯해 일본 전역에서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다. 또 올해로 23회를 맞이하는 서일본 눈싸움 대회, 역사 깊은 '와카사 신사(若桜神社) 대제', '와카사 벤텐(若桜弁天, 칠복신의 하나) 대제'는 이 지역 최대의 행사로서 마을 안팎의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처럼 마을의 특성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를 추

진하는 한편, 보육료 전액지원, 초·중학교의 교육을 통한 초중 일관학교(小中一貫校)의 운영 등 육아 환경의 내실을 다지는 데도 힘을 쏟아,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매력적인 마을 만들기를 민관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평창군과 와카사정의 우호교류협정까지의 과정

히라이 신지(平井伸治) 돗토리현 지사가 '평창군에는 용평 스키장, 와카사정에는 효노센 스키장이 있으니, 이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조언한 것이 교류의 계기가 되었다.

2008년 방문단을 결성해 강원도 및 평창군을 찾아 협의를 가진 이래, 서로 오가며 협의를 거듭해, 2010년 4월에는 직원 상호 파견 연수에 관한 협정서를, 6월에는 이 협정에



봉평초등학교와 와카사학원 학생이 함께 메밀국수를 만들고 있다.



한식 요리 교실



관한 각서를 체결했으며, 7월부터 직원 상호 파견 교육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직원 파견 및 학교 간 교류, 양측의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교류가 깊어지고 있다.

평창군과 와카사정의 교류 내용

2010년부터 시작한 직원 상호 파견 연수로 지금까지 와카사정에서 5명의 직원을 파견했고, 또 평창군에서 3명의 직원을 받아들였다. 행정 사무를 배우고, 파견지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등 주민과 교류하고 지역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평창군에서 파견한 직원이 개최한 ‘한식 요리교실’이 호평을 받으며 김치, 비빔밥 등의 음식을 통해 와카사정 주민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원 상호 방문 외에 와카사정에서 결성한 방문단이 평창군 대관령 눈꽃축제와 송어축제에 참가해 와카사정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부터 평창군 봉평초등학교와 와카사학원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재작년에는 봉평초등학교 학생이 와카사정을 찾아 또래 학생들과 함께 전통놀이 도구인 겐다마와 다케 톰보(대나무 잠자리), 메밀국수 만들기, 바비큐, 불꽃놀이 등을 하는 가운데, 바로 친해져서 언어의 벽을 뛰어넘는

교류를 가졌다.

민간단체로는 한국 문화에 익숙한 ‘벚꽃회(ボッコツの会)’가 결성되었는데, 평창군을 찾아 이효석 문화제에서 지역 분들과 함께 요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최하는 등 와카사정 주민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또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와카사정에서 약 20명이 방한하여 올림픽을 응원, 관전하고 평창군과 와카사정 주민의 교류회를 가질 예정으로, 와카사정의 많은 분들이 평창군의 좋은 점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2010년 우호교류협정 체결 이후 교류를 거듭해 왔지만, 앞으로도 양국의 가교가 될 직원 상호 파견과 학생 교류 사업을 지속하며 교류의 심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시야를 지닌, 양국 친선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 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와 더불어 민간 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교류의 장이 와카사정 전체로 확산되어 평창군과 와카사정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집필: 와카사정, 협력: CLAIR, Seoul)



지치부 요마쓰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지치부 요마쓰리와 애니메이션의 성지, 지치부시

지치부시(秩父市)는 사이타마현(埼玉県) 북서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577.83km²로 사이타마현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 도심에서 약 80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주위는 산악과 구릉지로 둘러싸인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지치부층군(秩父層群)이라는 지층으로 구성된 부코산(武甲山) 등의 험준한 산과 변성암으로 구성된 완만한 소토치치부(지치부시 외곽) 산들, 그 모양의 차이와 여러 단층으로 나뉘어진 지치부 단구 지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 내는 풍요로운 자연과 예로부터 전해진 역사와 문화는, 지치부시를 풍광명미한 지역으로 만들었다. 현재, 지치부시는 주변 4개 마을과 더불어 ‘지오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오파크란, 지역 고유의 지질과 지리, 생태계, 역사·문화 등의 지역자원을 있는 그대로 정비해 ‘지구와 인간 관계’를 주제로 하는 시민 공원을 조성하고,

행정 및 관계 기관, 주민 등이 협력해 이들 자원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지치부를 대표하는 장엄한 축제와 파워 스폿(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기가 높은 ‘미쓰미네 신사’

2017년 12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치부 요마쓰리’는 지치부의 총사(總社)인 지치부 신사의 예대제(例大祭, 큰 제사)로서 교토의 기온 마쓰리, 히다의 다카야마 마쓰리와 더불어 ‘일본의 3대 히키야마 마쓰리(끌거나 메는 장식 수레가 동원된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이 축제는 매년 12월 2~3일에 실시되는데, 제례 당일은 휘황찬란한 2대의 가사보코(제례에 사용되는 큰 우산 모양의 장식을 붙여서 끌고 다니는 수레)와 4대의 야타이(축제 때 끌고 다니는 수레)를 끌며 행진한다.



지치부 분지를 뒤덮은 '운해'

절정은 3일 밤으로 최대 20t에 이르는 가사보코와 야타이를 가파른 언덕의 집결장소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은 박력이 넘치며, 이에 맞춰 약 7천발의 불꽃이 쏟아 올려져 겨울 밤 하늘을 수놓는다.

그리고, 매년 10월 두 번째 일요일에는 '류세이 마쓰리'가 개최되는데, 그 옛날 우주에 심취한 산골 백성이 예지와 감성으로 고안했고, 27개 유파에 의해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수제 로켓 '류세이(龍勢)'가 무크 신사(棕神社)에 봉납되고 있다. 승천하는 용을 연상시키는 데서 이름을 따온

'류세이'가 청명한 가을 하늘로 날아오른다.

또 표고 1,100m에 위치한 '미쓰미네 신사'에서는 매달 1일에 한해 '기마모리(気守)'라 부르는 흰색 부적을 판매하는데, 매우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에는 장사진을 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사철 피어나는 꽃과 장엄한 풍경

먼저 봄에는, 크고 작은 30개 이상의 시다레자쿠라(가지가 축 늘어진 벚꽃)가 경내에 심어져 있는 '세이운지(淸雲寺)



부코산이 내려다보이는 지치부 분지



하늘을 날아오르는 수제 로켓 '류세이 마쓰리'



세이운지의 '시다레자쿠라'

의 벚꽃'과 약 17,600㎡에 40만주 이상의 꽃으로 디자인해 조성한 '시바자쿠라노 오카'의 잔디 벚꽃, 지치부 뮤즈파크와 미쓰미네산의 석남꽃 등이 핀다. 여름에는 아라카와 지구(荒川地区)의 메밀꽃과 연꽃, 지치부 뮤즈파크의 원추리와 백일홍이 핀다. 또 시내 각지에 반딧불 자생지가 있어 환상적인 비상을 볼 수 있다.

가을에는 오키지치부산이 울긋불긋 물드는데, 일교차가 심해지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는, 지표면에서 발생한 안개가 끼면서 '운해'가 만들어진다. 표고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운해가 지치부 분지를 가득 메우는 장대한 광경이 눈 앞에 펼쳐지는데, 그 모습은 그야말로 압권이다.

겨울에는 바위틈에서 흘러 나오는 천연 석간수(石清水)가 얼어서 생기는 얼음기둥 '미소쓰치노 쓰라라(三十槌の氷柱)'가 모습을 드러낸다. 강추위가 만들어내는 얼음 예술은 높이 10m, 폭 50m에 이르며, 밤에는 조명을 비춰 환상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성지와 이미지 캐릭터 '포테쿠마군'

지치부가 무대 설정의 모델이 된 애니메이션 '그 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2011년 4월부터 후지TV의 심야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대를 일컫는 '노이타미나(noitamina)' 등의 시간대에서 방송되어,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영화는 사춘기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 갈등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으로, 2013년 8월에는 극장판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가 전국에서 개봉되어 대히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갈



꽃의 융단 '시바자쿠라노오카'

은 스태프가 제작한 감동 청춘 군상극 제2탄, 영화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가 개봉되어, 두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건물과 풍경을 보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많은 애니메이션 팬이 '성지 순례' 하듯 방문하고 있다.

또, 2015년 1월에 탄생한 지치부시의 이미지 캐릭터 '포테쿠마군'은, 지치부의 토속 요리인 '미소포테토(튀긴 감자에 된장 소스를 얹은 요리)'를 좋아하는 곰 요정으로, 지치부시의 홍보부장으로도 임명되었다. 지치부시의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그 귀여운 모습과 몸짓으로 조금씩 팬을 늘려 가고 있다.



지치부시 이미지 캐릭터 '포테쿠마군'

지치부의 풍토가 낳은 다양한 미각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일교차 또한 큰 지치부는 포도와 딸기 등의 과일과 메밀 재배에 적합하고 열매 따기와 농사 체험 등도 가능하며, 제철의 맛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치부에서는 일본 전역의 단풍 나무 수종 대부분이 자생하고 있는데, 이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줄이면 '메이플 시럽'이 된다. '메이플 시럽'은 캐나다가 유명하지만, 지치부에서도 이 시럽을 사용한 과자와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고 있어, 지치부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집필 : 지치부시, 협력 : CLAIR, Seoul)

오세치 요리

일본에서는 정월 초하루가 되면 ‘오세치 요리(御節料理)’를 먹으며 새해를 맞이한다. 오세치 요리는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며 좋은 운을 부르는 요리로 오곡 풍양, 자손 번영, 장수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야마가타 료(山片 良) ‘나카무라 아카데미’ 일본요리 전임 강사에게 일본 요리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오세치 요리’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일본의 오절구(五節句, 음력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즉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먹는 음식을 ‘오세치 요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오세치 요리를 먹지 않게 되면서, 최근에는 일본의 설에 해당하는 1월 1일부터 3일까지 먹는 음식을 ‘오세치 요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월에 문을 연 가게도, 냉장고도 없었기 때문에, 12월 30일부터 31일에 걸쳐 오세치 요리를 만들어 찬함(重箱)에 담아두었다가, 1월 1일이 되면 온 가족과 친척이 모여 먹던 풍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으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모두 나카무라



아카데미 일로 왔습니다. 10년 전, 나카무라 아카데미 오픈 때 1년 동안 지냈고, 3년 전에 다시 왔습니다. 총 4년 동안 한국에 있었지만, 한국어 실력은 식재료 이름을 외우는 정도라 앞으로는 한국어를 좀더 잘 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수업할 때와 비교해서, 한국에서의 수업은 어떤가요.

이곳에서 요리를 배우는 학생들도 처음에는 일본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이 많은데, 수업을 들으면서 스스로 알아본다거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일본어를 배우는 등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일본의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요리를 통해 일본에 다가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가미 모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의 Facebook을 비롯해서, 많은 미디어를 통해 일본요리를 소개 중인데,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일본요리를 소개한다기보다 ‘일본의 식문화’ 소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인도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일본 요리’가 아니라, 젓가락이나 식기의 쓰임새 같은 것도 포함한 ‘일본의 식문화’입니다. 이는 곧 일본의 정신이기도 하고, 이것이 있어야 비로서 일본요리가 성립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일본에 가서서 정성을 담아, 아름답게 만든 일본요리를 꼭 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오늘 수업한 오세치 요리나 2월이 되면 에호마키(恵方巻き)를 먹는 풍습 등 현대 일본에서 사라져가는 일본의 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카무라 아카데미에서 다양한 일본요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함께 널리 소개해 가겠습니다. 초보자 등 관심 있는 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들러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세치 요리



다즈쿠리 (田作り, 멸치조림)

멸치를 뿌린 밭(田)의 농작물이 풍작(作り)이 되길 기원하는 오곡 풍양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가즈노코 (数の子, 염장한 청어 알)

수많은 청어 알처럼 자손 번영의 염원이 담겨있다.

사와라 나베 데리야키 (鯖鍋照り焼き, 삼치 나베 데리야키)

성장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출세어’인 방어나 삼치를 주로 사용하며, 경사스러운(おめでたい) 일에 많이 먹는 도미(たい)도 자주 쓰인다.

에비 우마니 (海老旨煮, 새우 조림)

등이 굽고 수염이 긴 새우는 허리가 휠 때까지 장수하라는 의미로, 머리가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우리지로 시이타케 (裏白椎茸, 생선 살로 속을 채운 표고버섯 찜)
표고버섯의 속은 하얗고 겉은 검은데, 마음 속까지 희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염원이 담겨 있다.

우메닌진 (梅人参, 매화 당근)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는 장수를 상징한다.

다케고보우 (竹こぼう, 대나무 우영)

가늘고 긴 우영과 대나무는 장수를 상징한다.

고하쿠 나마스 (紅白なます, 홍백 초절임)

붉은 색, 흰 색은 경사스러운 일에 많이 쓰인다.

다테마키 (伊達巻, 계란말이)

다테(伊達)는 ‘강하다, 멋지다, 아름답다’ 등의 여러 의미가 담겨있다.

구리킨톤 (栗金団, 밤을 감싼 고구마 경단)

킨톤(金団)은 금을 뜻하며 재물운을 의미한다.

일본의 떡국 ‘조우니’

일본은 새해에 정월신(年神)에게 떡을 공물로 바치고, 이 떡으로 조우니(雑煮)를 만들어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다. 이는 신의 가호와 은혜를 받아 그 해 풍작과 번영을 얻기 위해서다.



별난 이름의 일본 영화

정재혁 · 일본문화원 리포터(3기)



어느 감정의 영화

어쩌면 새로운 장르가 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액션이나 로맨스, 코미디나 스릴러와 같은 틀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장르가. 일본 영화에 작은 흐름이 느껴지는 요즘이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 레터'로 불을 지폈고 몇몇의 공포 영화, 그리고 오다기리 쇼나 카세 료, 아오이 유와 같은 배우의 영화로 시장을 키워나갔던 일본 영화가 배우도, 감독도, 장르도 아닌 어떤 감정의 맥락에서 자리를 넓히고 있다.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일주일간 친구' 등. 제목부터 별난 이 영화들은 크진 않지만 나름의 수익을 냈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꿈을 주는 일본 영화

지난 10월 개봉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는 46만 관객을 동원하며 41만 관객수를 기록했던 2014년 영화 '주온:끝의 시작'을 넘어섰다. 패션지 '멘즈 논노'의 모델로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카구치 켄타로 주연의 '너와

100번째 사랑'을 연출한 츠키카와 쇼 감독의 작품이다. 올해 5월에 개봉한 '너와 100번째 사랑'은 8만 관객 동원을 기록했다. 이 영화들은 소재가 제각각이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는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여학생의 사랑 이야기고,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는 회사 생활에 지친 주인공이 동창생을 사칭하며 나타난 유명과 맺는 관계를 그린 드라마며, '일주일간 친구'는 일시적 기억 상실을 앓는 여학생과 그의 친구가 되려 애쓰는 남학생의 우정담이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디 하나 티 없이 맑은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이뤄진 세계, 그런 리듬으로 흘러가는 시간. 일본 영화는 꿈을 끈다.

진심을 길러내기 위해 이들 영화는 만화적인 상상을 가져온다. '너와 100번째 사랑'의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레코드,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의 환생과 유명과의 공존 등.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이들 영화가 어떤 흐름의 맥락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와 감독의 면면 덕택이다. '너와 100번째 사랑'과 '너의 췌장이 먹고 싶어'의 츠키카와 쇼, '나는 내일, 어제의 너

와 만난다'의 미키 타카히로,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의 쿠마자와 나오토,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의 코이즈미 노리히로 등. 별 유명하지 않는 이름들이다. 쿠마자와 나오토의 경우 비교적 알려지긴 했지만 브랜드가 될 정도의 이름은 아니다. 반면, 배우들의 이름은 앞으로의 일본 영화를 예감하게 한다. '너와 100번째 사랑'의 사카구치 켄타로는 드라마 '코우노도리'에서의 연기로 모델 출신 배우라는 꼬리표를 말끔히 떼어냈고,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의 후쿠시 소타와 쿠



도 아스카는 스다 마사키, 이케마츠 소스케 이후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으며,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에서 후쿠시 소타와 함께 연기한 히가시데 마사히로는 요시다 다이하치의 '키리시마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와 구로사와 기요시의 '산책하는 침략자'로 우울과 불안의 페르소나로 인상을 선명히했다.

그런데 이들 영화는 모두 소설이나 만화가 원작이다. 오리지널 작품은 한 편도 없다. 그러니 일본 영화의 자장 안에서 길어진 작품이라 말하기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감독의 색깔보다 원작의 정서로 만들어진 작품이 이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고 영화의 필터를 거쳐 관객에게 도착한다. 심지어 판타지가 뒤섞인 순수과 진심의 세계로 수렴된다. 기생에서 펼쳐진 한 자락의 영화다.

지금 일본 영화를 설명하는 이름들

어쩌면 장르가 의미를 상실한 건 이미 오래전 일일지 모른다. 애초 장르는 영화 업자들이나, 통계나 아카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 붙여놓은 이름표에 불과하다. 예술이란 영역에 예술 이외의 어떤 말도 자리를 갖지 못한다. 홍상수의 영화를, 에릭 로메르의 영화를 어떤 장르라 말할 수 있을까. 일본 영화 역시 마찬가지다. 금지의 장벽이 풀려 호러, '러브 레터'로 대변되는 로맨스로 이해됐던 일본 영화는 해지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장르로 소비되지 않는다. 그 대신 등장한 건 어느 스타일이나 감독의 이름이다. 느긋하게 삶을 관조하는 고

레에다 히로카즈, 아무 것도 없는 듯한 세계를 자신만의 리듬으로 표현하는 오기가미 나오토, 기발하고 독특한 상상으로 삶의 어떤 찰나를 응시하는 요시다 다이하치, 사라져가는 것들의 시간을 독자적인 앵글 안에 담아내는 가와세 나오키, 치열함 자체가 영화의 형식이 되어버린 히로키 류이치. 특히나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는 오래된 작품과 가장 따뜻한 신작이 비슷한 시기에 공개된다. '세 번째 살인'은 그간 가족 드라마 류의 온화한 작품을 선보였던 그가 법정 심리극에 도전한 작품이다. 심리 스릴러라 할 만큼 후루야마 마사하루와 야쿠쇼 코지의 긴장감 넘치는 솜이 인상적이다.

그가 거의 20년 전, 두 번째 장편으로 완성한 '원더풀 라이프'는 천국으로 가는 중간 역, 림보라 불리는 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7일을 그린 작품으로 그의 영화에 관통하는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의 서사가 흐른다. 더불어 오기가미 나오토도 변신의 작품을 선보였다.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는 거의 무에 가까웠던 그의 영화에, 스토리가, 그것도 굵고 진한 이야기가 하나의 결실을 맺은 작품이다. 별난 이름과 함께 다가온 일본 영화, 그 안엔 진심과 순수한 마음이라 밖에 수식할 수 없는 세계, 그리고 지금의 일본 영화를 얘기하는 감독들과 내일을 예감케 하는 배우들의 이름이 있었다.



일본의 설풍경전 & 다카라즈카시 수공예협회 작품전을 마치고

1월 10일(수)부터 20일(토)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서 열린 '2018 신년일본문화소개전 : 일본의 설풍경전 & 다카라즈카시 수공예협회 작품전'이 1월 중순의 강추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인원 2,000여 명이 관람하는 성황을 이루었으며, 10일 동안의 일정을 마쳤다.

올해, 신년일본문화소개전은 일본의 설 풍습과 장식물 등을 소개하는 '일본의 설풍경전'과 함께 일본 다카라즈카시 수공예협회의 협력으로 수공예작품전을 개최했다. 먼저, 설풍경전에서는 각종 장식물 등의 전시와 함께 전통적인 풍습들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호평을 얻었다. 소원을 적는 '에마'와 신년 운세를 점쳐보는 '오미쿠지', 새해 첫 붓글씨를 쓰는 '가키조메' 등이 대표적인 체험 코너로 관람객의 발길을 머물게 했다. 수공예작품전에서는 설을 테마로 한 패치워크 퀴트, 보틀플라워, 와시인형, 가족공예, 목공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뽐냈다. 또 행사 초반과 후반에 전시와 함께 4일간 진행된 8종류의 '수공예 워크숍'은 큰 관심을 모아 조기에 예약접수가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특히 '스테인드글래스 화장거울 만들기', '와시인형 만들기', '테슬장식 파우치 만들기' 등은 장시간에 걸쳐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시킨 참가자들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 '초등학생 일본문화 체험교실'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일본의 전통연 만들기'를 진행해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12일과 13일에는 체험교실 참가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일본의 전통 절구와 떡메로 '떡메치기'를 해서 떡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월 18일에는 작년에 이어 '어서 오세요! 일본차(茶)의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일본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일본차 대사' 오가타 준코(尾形順子) 씨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일본차에 대한 강의와 함께 물의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오묘한 차의 세계를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들에게 일본차의 매력을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행사에 참가했던 관람객들은 "다양한 설 체험이 즐거웠다", "일본의 설 문화를 알 수 있어 좋았다", "수공예작품이 따뜻하게 느껴졌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주었으며, 수공예 워크숍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워크숍에 참가할 수 있어 좋았다", "강사분의 친절한 지도로 어려운 부분까지 완성이 수 있었다"는 감상을 전했다.

2019년 신년행사에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니시오카 원장 특별강연회 개최 “대학생 여러분, 저와 함께 양국의 문화교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에 관심 있는 대학생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니시오카 타쓰시(西岡達史)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이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관심 있는 학교 관계자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2017년 10월 서경대학교 강연 모습.
서경대학교 한일문화예술연구소 제공

주제 일한 상호이해를 위한 문화교류

개요 문화적 공통점이 많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깊은 상호이해를 위해 문화 교류가 담당하는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왜 문화교류가 필요한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본다.

문의처 02-765-3011~3 (내선 127) 강주연 주임 (e-mail : juyoun.kang@so.mofa.go.jp)

J-MUSIC NOTES

미야비(雅-MIYAVI)

미야비는 일렉트릭 기타를 피크 없이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자신만의 ‘슬랩 주법’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30개국에서 300번 이상의 공연과 여섯 번의 월드 투어를 성공시켰다. 2015년 그래미 수상팀 ‘드류 & 새넌’을 프로듀서로 앨범 ‘The Others’를 발매했으며, 안젤리나 졸리 감독의 영화 ‘Unbroken’에서 배우로 출연하며 할리우드에서 데뷔했다. ‘Mission : Impossible – Rogue Nation’ 일본판 테마 송을 어레인지 제작하여 SMAP에 제공하는 등 여러 아티스트 작품에 참여하며, 일본 내외의 아티스트 및 제작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1월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일본 정부가 주최한 평화이벤트 ‘Peace is...’에서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작년 2017년 2월 <미야비 x 크로스페이스> 조인트 콘서트, 7월 <한일 슈퍼 락 페스티벌> 이후 8개월만에 3월 30일 서울에서 내한공연을 갖는다.



2월의 일본영화상영회

이마무라 쇼헤이 특별전

2월의 일본영화상영회에서는 《이마무라 쇼헤이 특별전》을 마련했다. 세계적인 거장 이마무라 쇼헤이(今村昌平, 1926-2006, 칸느영화제 그랑프리 2회 수상의 세계적 거장) 감독의 초기 작품인 ‘도둑맞은 욕정(盗まれた欲情)’과 ‘돼지와 군함(豚と軍艦)’, ‘붉은 살의(赤い殺意)’부터 전성기 작품 ‘나라야마부시코(楢山節考)’, 후기 작품인 ‘간장선생(カンゾー先生)’,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赤い橋の下のぬるい水)’까지 총 6편을 상영한다.

시간 14:30(14:00부터 입장)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상영 일정	영화 제목
2월 1일(목)	붉은 살의 赤い殺意
2월 2일(금)	도둑맞은 욕정 盗まれた欲情
2월 7일(수)	나라야마부시코 楢山節考
2월 8일(목)	간장선생 칸조ー先生
2월 9일(금)	돼지와 군함 豚と軍艦
2월 12일(월)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 赤い橋の下のぬるい水
2월 20일(화)	붉은 살의 赤い殺意
2월 22일(목)	나라야마부시코 楢山節考
2월 23일(금)	도둑맞은 욕정 盗まれた欲情
2월 26일(월)	간장선생 칸조ー先生
2월 27일(화)	돼지와 군함 豚と軍艦
2월 28일(수)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 赤い橋の下のぬるい水

2018 동아시아 문화교류사, 모리카와 히로토 전시회 '가나자와 현재 몽환'

일본 문화청에서 동아시아 문화교류사로 지명한 모리카와 히로토(モリカワ ヒロト)의 작품 전시회 '가나자와 현재 몽환(金沢現在夢幻)'이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모리카와 히로토 씨는 영상 크리에이터 겸 작곡가, Photographer로 활약하는 아티스트로서, 특히 고향 가나자와를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가나자와 영상작품 전시회 등 다수의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가나자와시는 2017년에 개최된 '제9차 일한중 문화장관회의'에서,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입장 무료.

일시 3월 6일(화)~12일(월) 10:00~17:30

개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최 모리카와 히로토(문화청 동아시아 문화교류사)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협력 문화청,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국민대학교

문의 010-7109-3667, pscmetal@gmail.com



제2회 대학생 일본 UCC 공모전 개최

주부산일본총영사관에서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영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미래를 짊어질 한국 청년들에게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고조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제2회 대학생 일본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홈페이지(<http://www.busan.kr.emb-japan.go.jp>)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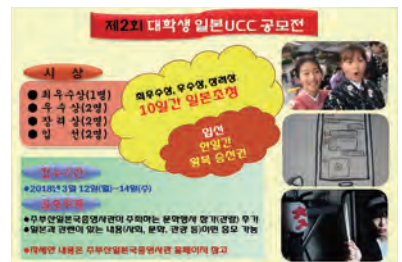
공모주제

- 주부산일본총영사관이 주최하는 문화행사 참가(관람) 후기
- 일본과 관련이 있는 내용(사회, 문화, 관광 등)이면 응모 가능

접수기간 3월 12일(월)~14일(수)

주최 주부산일본총영사관,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문의 주부산일본총영사관 공보문화부 051-410-6124~6



제4회 한일포토콘테스트 개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한국과 일본간의 문화교류 촉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해 양국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협력으로 2014년부터 '한일포토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응모 기간 1월 15일(월) ~ 2월 28일(수) **결과 발표** 3월 14일(수)

수상작 전시 3월 30일(금) ~ 4월 13일(금) **시상식** 3월 31일(토)

참가 대상 및 테마

- 한국 국적자는 일본의 매력을 테마(테마J)로 한 사진을 응모
- 일본 국적자는 한국의 매력을 테마(테마K)로 한 사진을 응모

응모 방법 한일포토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http://kjphotocon.org/>)에서 온라인 응모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내선111)





제 4 회

한일포토콘테스트 日韓フォトコンテスト

응모기간 応募期間
2018. 1. 15 - 2018. 2. 28

테마 J 일본의 매력
http://kjphotocon.org

테마 K 韓国の魅力
http://jkphotoc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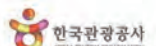
f 일본문화원 페이스북에서도 확인하세요!

주 최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공동주최



후 원



주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일본정부관광국 서울사무소 서울재팬클럽 교도통신사 연합뉴스 일본어저널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라고 불리는 일본, 대만은 물론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다양한 각색을 유학 여행기

온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중화요리 짜장면과 짬뽕. 어느쪽을 더 좋아하느냐 물으신다면 주저없이 대답할 것이다.

짬뽕은 중국의 복건성 출신 진평순에 의해 일본 나가사키에 전해져 일본의 면 요리가 되었고, 그 후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해졌는데 바로 이 동아시아 3국을 잇는 3국 짬뽕 회담이 이달 서울에서 펼쳐진다.

서울에서 오바마 짬뽕을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중국 → 일본 → 한국

나가사키현 우젠시에 있는 오바마(小浜)는 옛부터 온천의 수증기가 그칠 줄 모르는 온천 마을로, 인구 2만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지만 짬뽕 가게만 무려 70곳.

오바마 짬뽕은 나가사키에서도 최초로 생긴 짬뽕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오바마 온천의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향토식이다.



지역민 뿐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짬뽕반장이 있었다. '오바마 짬뽕 반장'으로 유명한 오바마 마을의 하야시다(林田) 씨.



*오바마 짬뽕반장의 공식캐릭터



또한 짬뽕반장은 일본 전국의 짬뽕을 모아 '월드 짬뽕 클래식(WCC)'이라고 하는 이벤트에서도 중원무진 활약하고 있다.



짬뽕반장은 재작년 겨울 서울에서 시마바라 반도를 소개하고 오바마 짬뽕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달 서울에서 동아시아 3국을 잇는 짬뽕 회담이 열린다. 짬뽕반장과 그 친구들이 방한해, 아시아 3국에 얽힌 짬뽕의 역사를 찾아 대답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오바마 짬뽕의 달인까지 동행하여 한국에서 오바마 짬뽕의 깊은 맛을 펼친다고 하니, 짬뽕 마니아라면 귀가 솔깃할 일이다.



언제? 2018년 2월 21일!
어디서? 서울 서교동 진진(津津) 3호점

*과식주의 ㅋ